

EU, 2006~13년 농산물시장 및 농가소득 전망

김 정 섭*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주요 품목별 시장 상황과 농가 소득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신규 회원국을 포함한 EU-25개국 모두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013년까지의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EU의 농산물 시장과 농가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1. 서론

이 보고서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의 농산물 중 주요 품목 시장과 해당 품목 생산 농가의 소득 상황을 예측한 결과를 담고 있다. 예측하는데 활용한 자료는 2006년 6월 초순에 수집된 것들이다. 농업정책, 무역정책,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전망, 세계 농산물 시장 전망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로 예측 작업을 진행했다. 이 가정들은 예측 작업을 시작한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토대로 가장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내용들이다.

(가정 1)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단일직접지불제(single farm payment)로 인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확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직접지불제의 디커플링(decoupling)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회원국들은 각기 선호하는 선택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것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경종작물, 우유, 쇠고기, 양고기 부문에서 직접지불 예산의 약 90% 정도가 단일직접지불제의 형태로 집행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비율은 쇠고기(78%)와 양고기(73%) 부문에 비해 우유(100%)와 경종작물(93%)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정 2)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이 공동농업정책을 수행하도록 돕는 모든 정책 수단들, 예컨대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진입이라든가 생산 쿼터제 같은 수단들은 2002년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실행될 것이다. 신규 회원국 10개 나라 중 8개 나라가 ‘면적 기준 단일직접지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슬로베니아와 말타는 현행 EU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8개 신규 회원국들은 2009년부터 지역화된 직접지불제 체계(regionalized system)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으로 가정했다. 슬로베니아와 말타는 2007년부터 지역화된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것으로 가정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신규 가입은 고려하지 않았다.

(가정 3) 2004/05 회계년도에 휴경 면적 비율은 5%로까지 감소했으나, 의무적인 휴경 면적 비율이 2005/06 회계년도에는 통상적인 수준인 1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휴경 면적은 이후에도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다. ‘면적 기준 단일직접지불제’를 선택한 신규 회원국들의 경우, 의무적 휴경제는 2009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다.

(가정 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문(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URAA)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특히 시장 접근과 수출 보조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이행될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수출 보조금은 URAA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현행의 시장 접근 물량과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을 완전히 포함하여 가정했다. 2006년 6월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들을 근거로 예측 작업을 했기 때문에 도하 라운드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무역 협상의 있을 수 있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URAA의 내용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

(가정 5) 유럽연합의 거시경제 환경은 2006년에 보다 확실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 같은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 연평균 GDP 성장률 2%를 초과한 이후로, 그 추세는 다소 둔화되어 2005년에는 1.6%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은 예측 기간 초기인 2006년에는 2.3%, 2007년에는 2.2%, 2008년에는 2.4%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했다. 기타 거시경제 환경 변수들과 관련하여 채택한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유럽연합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관한 가정, 2005~13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EU 25개국의									
인구성장률	0.3%	0.3%	0.3%	0.2%	0.2%	0.2%	0.2%	0.1%	0.1%
- EU15	0.4%	0.4%	0.3%	0.3%	0.3%	0.2%	0.2%	0.2%	0.2%
- EUN10	-0.2%	-0.2%	-0.2%	-0.2%	-0.2%	-0.2%	-0.2%	-0.2%	-0.2%
GDP 성장률	1.6%	2.3%	2.2%	2.4%	2.4%	2.4%	2.4%	2.4%	2.4%
인플레이션	1.8%	1.8%	2.0%	1.9%	1.9%	1.9%	1.9%	1.9%	1.9%
환율(US\$/€)	1.24	1.19	1.20	1.20	1.19	1.18	1.16	1.15	1.15

(가정 6) 세계 농산물 시장의 중기 전망은, 거시경제 환경의 호조, 인구 증가, 신흥 경제권에서의 도시화와 식품소비 패턴 변화 등의 요인에 힘입어 필연적으로 식품 수요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농산물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산물 가격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종작물 전망

2.1. 곡물류에 대한 전체적 전망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곡물류들은 그 시장 상황이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시장에서의 곡물 소비량 증가와 곡물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축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지침 (biofuel directive)’과 ‘바이오매스 행동 계획(biomass action plan)’에 따라 신규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매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역내에서 곡물 소비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세계 곡물 수요 증가세가 지지될 것이며, 유럽연합은 이로부터 이익을 볼 것이다. 이처럼 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유럽연합 대부분 지역에서 곡물 시장은 균형이 잘 유지될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조건이 우호적이다. 그러나 토지 이용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신규 회원국들의 유럽 단일 시장 진입과 통합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지역에 따라서는 곡물 시장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시장에서 예측 기간 동안 옥수수는 구조적인 과잉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2.2. 재배면적 분포

유럽연합의 곡물 재배면적은 약 5,100만 내지 5,200만 ha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북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윤작체계 내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겠지만, 곡물 생산 주요 지역에서 농경지면적 중 곡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곡물류

의 대체 작물인 감자나 사탕무 시장이 포화 상태를 맞이할 것이고 수출 기회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곡물을 재배하는 대신 유지류를 재배하는 면적도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전업농들이 윤작체계 내에서 곡물의 비중을 줄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곡물을 재배할 것인지 그 구성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것이다. 그 상대적 수익성이 변화함에 따라 연질밀(soft wheat)이나 호밀 재배면적이 약간 증가할 것이다. 보리 재배는 연질밀 등의 작물에 비해 점차 경쟁력을 잃고 그 재배면적도 줄어들 것이다. 듀럼 밀(durum wheat) 재배면적은 유럽연합 내수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약 350만 ha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옥수수 재배면적은 약 600만 ha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예측 기간 초기 몇 년 동안 옥수수 생산자 가격은 정부 개입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존 EU 회원국들에서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decoupled) 직접지불제 도입과 신규 회원국들로부터의 옥수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시장 가격에의 압박으로 인해, 옥수수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이다.

최근 휴경면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2006년 현재 720만 ha에 이르고 있다. 그중 400만 ha는 의무적인 휴경 면적이다. 2009년 이후로는 신규 회원국들이 현재의 ‘면적 기준 단일직접지불제’를 중지하고 대신에 ‘지역화된 단일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 휴경면적이 100만 ha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토지 이용 형태를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신규 회원국들에서 의무적 휴경제를 도입하는 것과 완전히 생산과 분리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일은 그 지역에서 구조적인 과잉 생산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매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료 수요의 증가로 인해, 예측 기간 끝 무렵에는 집약적인 곡물 생산지역 내 의무적 휴경지에서 에너지 용도로 곡물을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설탕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 개혁으로 인해, 2007년 이후에는 사탕무 재배면적이 현재 220만 ha인 것이 180만 ha로 줄어들고 대신에 곡물 및 유지류 재배면적이 약 40만 ha 증가할 것이다. 사탕무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함으로써 가장 경쟁력 있는 사탕무 산지에서의 그 재배면적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탕무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게 될 40만 ha의 농지 중 약 10만 ha 정도는 유지류 재배에, 20만 ha 정도는 연질밀 생산에, 나머지 10만 ha 정도는 옥수수 재배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 개혁(Sugar Reform)’이 곡물 생산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약 250만 톤의 곡물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연질밀 150만 톤, 옥수수 100만 톤). 평지씨(rapeseed)는 약 60만 톤 정도 추가 생산될 것이다.

2.3. 곡물 수확량 변화

2013년까지 곡물 수확량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다.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0.7%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EU-25개국의 단위 면적당 곡물 수확량은 2006년 5.1t/ha에서 2013년에는 5.3t/ha까지 증가할 것이다. 2013년쯤에는 기존 회원국의 단위 면적당 곡물 수확량이 6t/ha에 달할 것이다. 이에 비해 신규 회원국의 단위 면적당 곡물 수확량은 3.8t/ha에 머물 것이다.

신규 회원국에서의 곡물 수확량 증가율은 매년 1.1%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기존 회원국들의 수확량 증가율은 다소 낮아 0.5% 정도에 머물 것이다. 옥수수 수확량은 신규 회원국들에서 강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증가율이 매년 1.2%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연합의 서부 지역인 주요 옥수수 산지의 생산량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 곡물 수확량 증가 추세는 북유럽과 남유럽 간에, 동유럽과 서유럽 간에, 1980년대 동안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안 사이에 큰

* 유럽연합의 ‘바이오 연료 전략(Biofuel Strategy)’에 따르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 용도인 경우 의무적 휴경지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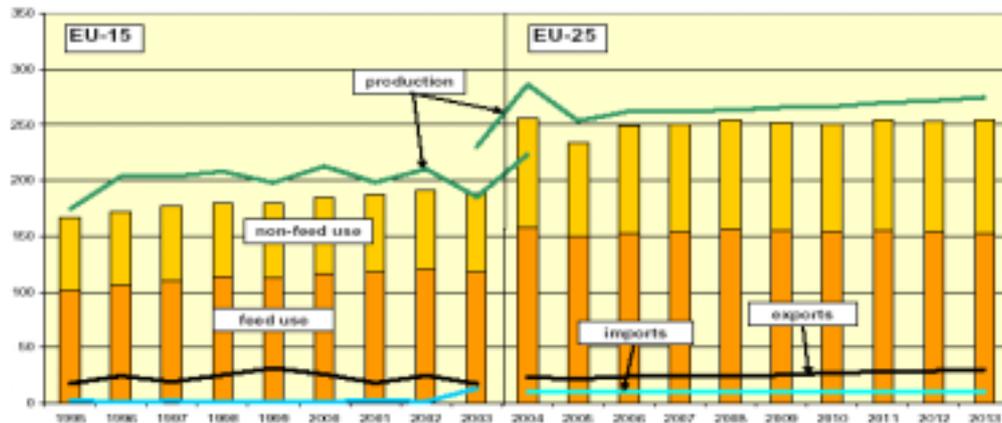
차이를 보였다. 구 회원국에서의 수확량 증가 추세는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는 가장 경쟁력 있는 곡물 산지에서 기술 수준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연간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적 진보의 정체와는 별개로, 수확량 증가 추세 완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생산물의 품질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신규 회원국들에서는 수확량 증가 추세가 단기간에 심화되었다.

2.4. 유럽연합의 곡물시장 전망

생산량 변동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과 수확량 증가율이 낮은 지역이 늘고 있어서 예측 기간 동안 유럽연합 대부분 지역에서 곡물 시장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그림 1 유럽연합의 곡물시장 변화 전망, 1995~2013년

백만 톤



EU-25개국의 곡물 생산 수준은 2013년에는 2억 7,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6년 추정치인 2억 6,200만 톤에 비해 약 1,300만 톤이 더 많은 것이다. 이 증가분 중 약 절반 정도가 밀 생산량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기간 동안 밀 생산량은 1억 2,700만 톤에서 1억 3,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옥수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할 것

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리 생산량은 약간 감소할 것이며,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2013년경의 생산량은 5,600만 톤 정도가 될 것이다.

역내 곡물 소비량은 예측 기간 동안 800만 톤 증가하여 2006년에 2억 4,800만 톤 정도인 것이 2013년에는 2억 5,500만 톤에 이를 것이다. 축산업 성장,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매스 산업의 출현이 그 원인이 될 것이다.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곡물 수요는 예측기간 동안 63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이다. 2013년에는 그 수요량이 870만 톤에 달할 것이다. 그리하여 EU-25개국에서 곡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바이오에탄올의 양은 약 300만 톤에 달할 것이다(2006년 현재 곡물로부터 추출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90만 톤).

곡물 사료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억 5,200만 톤인 것이 2013년에는 1억 5,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량과 비교할 때, 증가추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곡물 사료 수요 증가추세의 완화를 초래할 요인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특히 신규 회원국에서 사료 효율성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할 정육 1톤 당 곡물 사료 사용량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것이다. 1992년과 1999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인해 곡물 사료 생산부문의 경쟁력이 확보되었다. 앞으로는 곡물 사료 소비에 기인한 곡물 소비량 증가는 상당히 제한될 전망이다. 그리고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생산의 부산물로부터 만들 수 있는 값싼 단백질 사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곡물 대신에 단백질이 더 풍부한 새로운 형태의 동물 사료가 널리 사용될 전망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격과 관련된 변화로 인해 곡물 사료 성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예측 기간의 전반부 동안에는 서유럽에서는 보리가 사료 용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신규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값싼 옥수수가 그때까지는 서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측 기간의 후반부 동안 옥수수는 사료 용도로써 더욱 매력적인 곡물이 될 것이다. 신규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값싼 옥수수는 2009년 이후로

는 서유럽 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을 크게 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옥수수가 사료용 밀과 사료용 보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양호한 세계 시장 조건,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곡물 수입량 증가 현상과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강세 현상이 맞물려, 유럽연합은 2013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곡물 수출은 2006년에 2,400만 톤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품목은 연질밀이다. 현재의 WTO 협정과 쌍무간 협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곡물 수입은 예측 기간 동안 1000만 내지 1100만 톤에 머무는 상당히 안정된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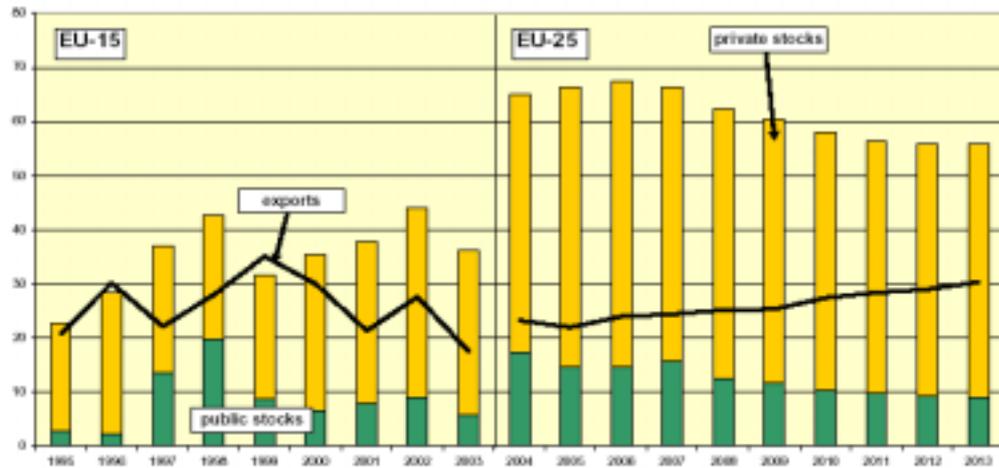
유럽연합의 곡물 재고는 다음 두 해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007년에는 곡물 재고량이 6,600만 톤 이상이 될 것이다. 그 후 2008년부터는 재고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5,580만 톤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전반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 내의 분리된 여러 곡물 시장들이 보이는 지역간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유럽연합의 대부분 지역들은 역내 소비량 증가, 수확량 증가율 감소, 세계 시장에서의 참여 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 재고량이 급감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시장 재고와 공공부문 재고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 두 나라에서 예측되는 구조적인 잉여는 국내 소비량 증가, 수출량 증가, 2009년 이후부터 도입될 의무적 휴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금씩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부문의 곡물 재고량은 2004년에 1,740만 톤으로 정점에 도달했던 것이 2005년에는 1,460만 톤으로 줄었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1,480만 톤과 1,58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이후에는 공공부문 곡물 재고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3년에는 910만 톤에 이를 것이다. 대부분의 물량은 옥수수이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재고량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연질밀, 보리, 옥수수, 호밀이 공공부문 곡물 재고를 구성할 것이다. 호밀의 공공부문 재고량은 2007년에는 없어질 것이다. 보리의 공공부문 재고량 또한 2010년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림 2 유럽연합의 곡물 재고와 수출 변화 전망, 1995~2013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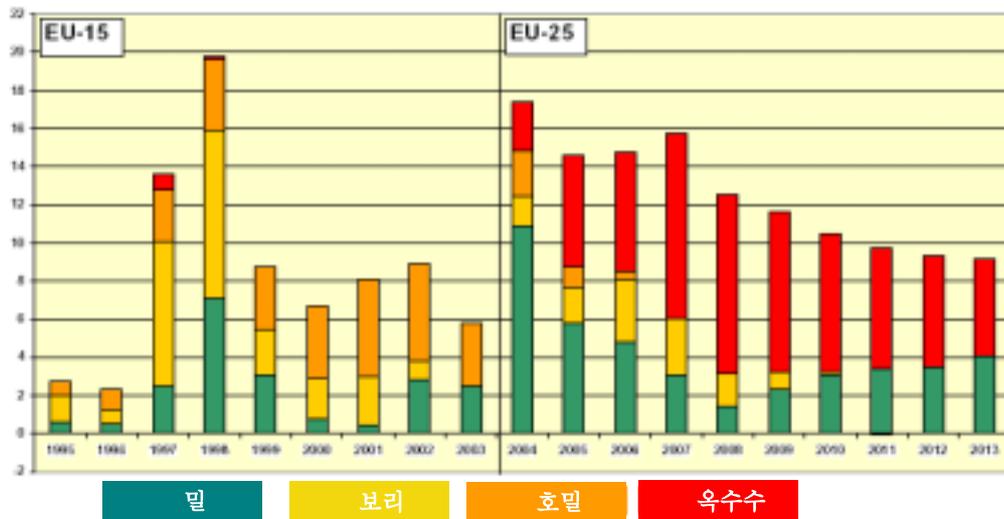
예측기간 전반부에 사료용 옥수수의 경쟁력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2008년 이후부터 사료용,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생산 용도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유럽 단일 시장에 점진적으로 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질밀은 예측기간 말미에는 약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인데, 사료용 옥수수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EU-25개국의 곡물 시장 중기전망은 공동농업정책 개혁, 완만한 추세의 수확량 증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점진적인 유럽단일시장 진입, 세계 시장의 양호한 조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낙관할 수 있으며 2013년까지 시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해나갈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옥수수나 연질밀 부문에서 특수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유럽연합 통합 속도를 예상보다 느리게 만들 수도 있는 요인이다.

그림 3 유럽연합의 공공부문 곡물 재고량 전망, 1995~13년

백만 톤



2.5. 유지(oilseed) 작물 시장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연합의 유지 작물 시장은 생산성 증대, 세계 시장 조건의 우호적인 조건(식물성 기름에 대한 세계 시장 수요의 지속적 증대), 바이오디젤 수요 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 힘을 받을 것이다.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평지씨 기름 소비량의 최근 증가 추세로 인해 유럽에서의 평지씨 시장 잠재력이 크게 증가했다. 2005년 들어 처음으로 평지씨 기름의 비식품적 이용이 식품적 이용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 새 평지씨 생산량과 수입량 증대를 초래했다. 지난 2년 동안 평지씨 기름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까지 치솟았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평지씨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럽연합의 평지씨 압착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압착 설비가 늘

어나고 바이오디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지씨 기름 가격과 평지씨 가격이 과거에 비해 더 잘 연동되고 있기는 하다.

평지, 해바라기, 콩 등 유지 작물 총재배면적은 2002년에 660만 ha로 바닥을 쳤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680만 ha를 기록했다. 그 중 50만 ha는 휴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비식용 유지작물 재배 면적이다. 2005년에 유지 작물 재배면적은 약 700만 ha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그 중 90만 ha가 휴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재배 면적이다. 유지작물 시장 중기 전망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수확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830만 ha에 달할 전망이다. 2013년에는 비식용 유지작물 재배면적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블레어 하우스 협정(Blair House Agreement)’에 의해 제한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부터 평지 재배면적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생산 지역에서 윤작 가능 경지가 한계 상황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지류 총 생산량은 2005년에 1,970만 톤을 기록했었는데, 2006년에는 증가하여 2,140만 톤에 이르렀다. 유지 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수확량 증가에 힘입어 2013년에는 유지류 총 생산량이 2,77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유지류 생산 증가는 대부분 해바라기 생산량 증가에 힘입게 될 것이다. 콩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휴경지에서의 비식용 유지류 생산량 또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80만 톤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440만 톤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 역내 수요가 증가하여 2013년에는 5,0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주로 평지씨 수요이며, 그 다음으로 콩 수요가 클 것이다). 이러한 내수 증가는 주로 현재 370만 톤 수준에서 2013년에는 1,200만 톤으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디젤 수요에 힘입게 될 것이다. 평지씨 기름과 바이오디젤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내수를 충족하기 위해 그것들을 여타의 식물성 기름과 블렌딩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전 세계적으로는 두 배 정도 늘어나 2013년에는 630만 톤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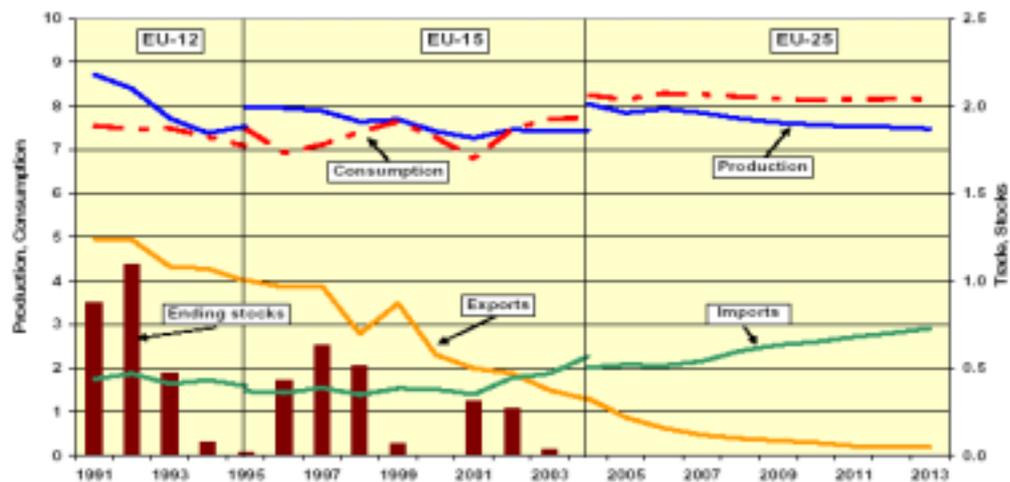
3. 축산물 전망

3.1. 쇠고기

2005년부터 디커플링이 적용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2004년말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소 도축량이 늘어난 탓에 쇠고기 생산량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 이후 2005년 한 해 동안 EU-25개국의 순 생산량은 2.5% 가량 줄어들었다. 2006년에는 약간의 반등세가 예상된다. EU-5개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보아 약간 감소하여 2013년에는 750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는 2005년도 생산량에 비해 약 5% 적은 수치이다.

그림 4 유럽연합 쇠고기 시장 전망, 1991~2013년

백만 톤



2006년에는 쇠고기 소비량이 약간 증가할 것이나, 그 이후로 증기적으로는 상대적인 소비 정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신규 회원국에서는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잠재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소비자 선호

도 하락으로 인해 대체로 상쇄될 것이다.

예측 기간 동안 수요가 꾸준하고 유럽연합 역내 공급량이 빠듯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모두 부과하고라도 더 많은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특히 남미로부터의 고품질 쇠고기 정육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다. 구제역 때문에 브라질에 대해 부과했던 2006년의 수입 제한조치로 인해 단기적인 쇠고기 가격 반등이 있었다. 그 이후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7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25개국의 쇠고기 역외 수출은 2005년에 33.5% 감소했다. 이는 유로화 강세, 역내 쇠고기 가격 상승, 수출 환급금 삭감, 순생산량 저조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EU-25개국의 육류 역외 수출은 계속해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2013년에는 5만 톤 미만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다. 역내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더 높아진 생산 수익성 그리고 도축용 가축에 대한 수출 환급금 제도 폐지로 인해 생우 수출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3분의 2 정도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젓소 고기이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량의 중기 전망은 우유 생산 부문의 변화에 좌우될 것이다. 쿼터 임차를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우유가격이 유지된다면, 할당된 쿼터는 다 채워지고 따라서 우유 생산량에 따라 젓소 사육두수가 결정될 것이다. 우유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젓소 사육두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 결과 송아지의 숫자나 비육 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육두수와 연계하여 보조금이 지불되는 국가들에서 주로 소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증가추세가 EU-25개국 전체의 젓소 사육두수 감소 추세를 상쇄할 만큼은 되지 못할 것이다.

EU-25개국 전체로 볼 때, 전업적인 목축 농가들이 생산하는 쇠고기가 전체 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평균적인 농가들의 소득은 대체로 우유 생산을 통해 얻는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 가축 사육, 사료 생산, 쇠고기 생산, 곡물 생산이 보완적인 소득을 이룬다.

우유 생산은 소 비육활동이나 다른 종류의 농업활동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쿼터제로 인한 젖소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잠재적 산유량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

3.2. 돼지고기

2005년도에 EU-25개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율은 바닥을 치고 다시 그 이후로 커지고 있다. 이는 내수와 해외시장 수요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EU-25개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3년경에는 2,20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생산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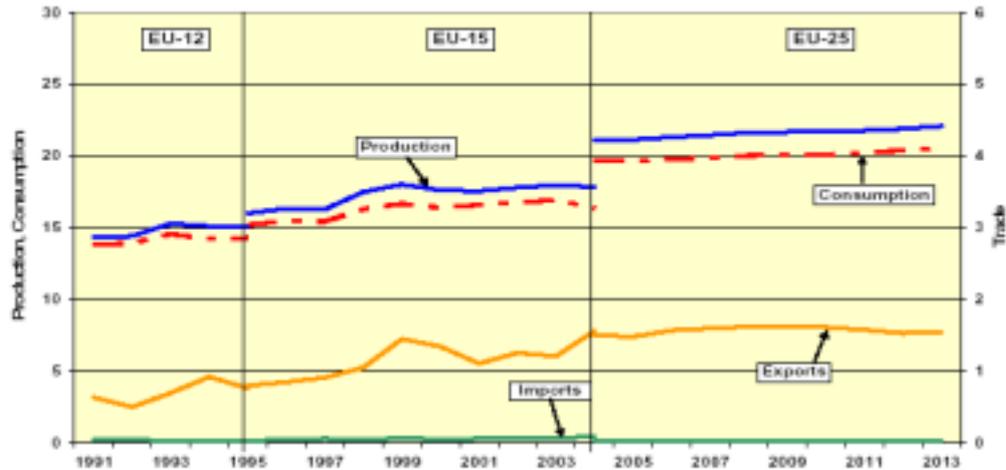
돼지고기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과 2005년에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간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42.8kg였던 것이 2013년에는 44.1kg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회원국들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도에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수출이 1.4%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수출량이 약간 더 증가할 여지는 있다. 한편 EU 역내 돼지고기 무역은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3.3. 가금류

2005년도에 가금육 생산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염려 탓에 수요가 줄어들고 따라서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유럽연합 돼지고기 시장 전망, 1991~2013년

백만 톤



H5N1 계통의 인플루엔자는 2006년 1월에 유럽의 야생 조류에서 처음 검출되었다. 야생조류 개체군 내에 그리고 상업적 용도로 사육하는 조류들에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과 회원국 수준에서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서만 (주로 사실상 날아다닐 수 없는 조류들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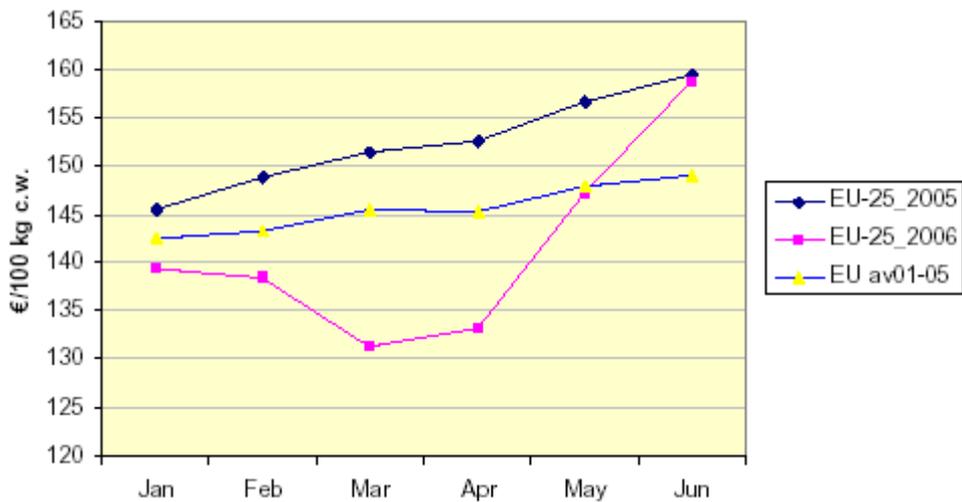
예방조치를 취했으나, 2006년 2월에는 프랑스 소재 칠면조 사육 농장에서 H5N1 인플루엔자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EU 역외 40개 이상 국가들이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 전역에 걸쳐서 두 세 차례 더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모두 효율적으로 통제되었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박멸되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중들의 걱정은 유럽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몇몇 회원국들은 가금육 소비량이 현저하게 줄었고, 따라서 민간 부문의 가금육 재고량이 늘고 시장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2006년 1분기 동안 사료 산업 부문의 사료 생산량은 10% 감소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위

협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회원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금육 가격 변동도 회원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역내 가금육 거래의 흐름이 확실히 왜곡되고 있다. 가금류 부문의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회원국들은 국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시장의 혼란에 의해 영향을 받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6년 초 이후로 수출 환급금을 증액했다. 그러나 유럽산 가금류 상품의 부분적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해외 수요 약세에 대해, 그러한 조치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금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4월에는 계란 및 가금육 공동시장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조치를 통해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시장 혼란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시장개입이 허용되었다. 현재까지 회원국들 중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수단들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그림 6 유럽연합 닭고기 가격: 2006년 상반기와 과거 수년간 가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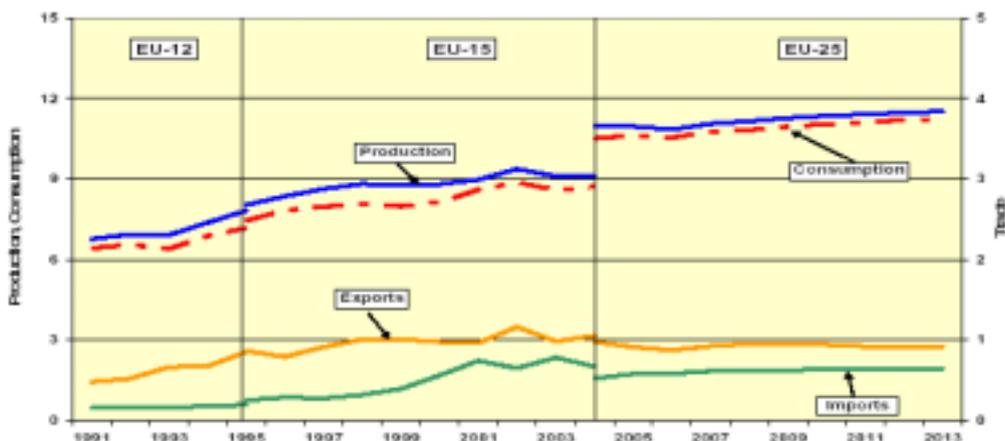
2006년 전반기의 유럽연합 가금류 시장 변동을 살펴보면, 2006년 6월의 가격은 2005년 6월의 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그리고 2001~05년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6.4%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6년 3월 시점을 살펴보면 가격은 131.3€/100kg으로, 2001~05년 동안 같은 달 평균 가격보다 9.8%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의 시장 지표에 기초할 때,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단기적 시장 혼란 상황은 중기적인 전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금육은 다른 종류의 육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낙관할 수 있다.

소비자 선호도나 조리 재료로서의 활용 비중 또한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가금육 1인당 소비량은 2005년에 23.2kg였던 것이 2013년에는 24.1kg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회원국들에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림 7 유럽연합 가금육 시장 전망, 1991~2013년

백만 톤



EU-25개국의 가금육 수출은 2005년에 6.3% 감소했다. 그 이후 2006~08년 사이에 단기적 회복을 보인 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으로 가금육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달러화와 브라질 레알화 환율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우유 및 유가공 제품

4.1 우유

2005년에 EU-25개국의 우유 생산량은 약간 증가하여 1억 4,240만 톤을 기록했으며, 집유량은 1% 증가하여 1억 3,160만 톤을 기록했다. 신규 회원국 10개국의 집유량은 5.8% 증가했는데, 이 국가들에서는 우유 부문의 구조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EU-25개국의 우유 생산량은 2013년에는 1억 4,4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기간 동안 매년 평균 1.2%의 우유 생산량을 가정한다면, EU-25개국의 젖소 사육두수는 2005년에 2,300만 두였던 것이 2013년에는 2,120만 두로 줄어들 전망이다.

4.2 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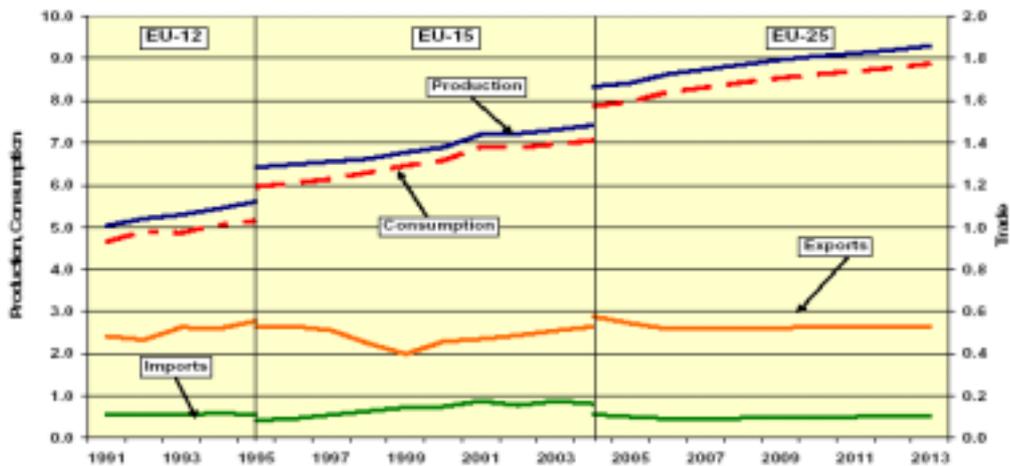
꾸준한 소비자 수요, 산업적 수요 강세, 버터 및 탈지분유 지지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예측기간 동안의 치즈 생산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에는 치즈 생산량이 1.1% 증가했는데, 2013년까지 1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EU-25개국의 치즈 소비량은 2005년에 1.4% 증가했다. 이 증가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EU-25개국의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2005년에 17.4kg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kg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회원국들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소비량이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유럽연합의 치즈 소비량 증가율은 생산량 증가율을 따라잡았다. 이로 인해 치즈 수출이 증가한 최근 몇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순수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치즈 수출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치즈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생산량 증가분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치즈 수출은 중기적으로는 연간 53만 톤 미만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8 유럽연합 치즈 시장 전망, 1991~2013년

백만 톤



5. 농업 소득

유럽연합의 농업소득 중기 전망치는 다소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U-25개국의 농업소득은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질가격 기준, 농업노동력 1단위 당 소득). 그러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예측치 이면에는 EU-15개국과 신규 회원국 10개국 사이의 차이가 가려져 있다. EU-15개국의 농업소득 증가는 같은 기간 11%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에, 신규 회원국의 경우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2013년까지 계속될 구조조정 작업을 반영한 것이다.

표 2 유럽연합 25개국 농업소득 전망, 2005~13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요소 소득 (명목가격 기준)									
EU-25개국	105	100.0	108.3	106.4	107.9	108.2	108.6	107.6	108.9
EU-15개국	107	100.0	108.1	105.9	107.2	107.0	107.3	106.0	107.3
신규회원국	93	100.0	110.1	111.3	115.1	120.6	122.2	123.1	124.9
노동력 투입									
EU-25개국	102	100.0	94.3	91.6	88.9	86.3	83.9	81.5	79.1
EU-15개국	102	100.0	95.5	93.3	91.1	89.0	87.0	85.0	83.0
신규회원국	103	100.0	92.2	88.5	84.9	81.5	78.3	75.1	72.1
노동력 1단위당 농업소득 (실질가격 기준)									
EU-25개국	103	100.0	110.7	109.9	112.5	114.0	115.5	115.5	118.0
EU-15개국	104	100.0	109.3	107.6	109.3	109.6	110.4	109.6	111.4
신규회원국	91	100.0	113.9	117.0	122.9	131.0	134.7	138.1	142.5

EU-15개국의 중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지 작물, 가금류, 돼지고기 등의 명목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지만, 가격이 더 높아져서 쇠고기 생산자 가치는 결과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우유 생산자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여기에는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유 부문의 가격지지 감축 조치가 반영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EU-15개국의 농업부문 전체의 총부가가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회원국들에서 경종작물 생산자 가치는 주로 옥수수과 유지작물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결국 예측기간 내내 2004년 수준 아래에 머물 것이다. 축산 부문에 대한 중기 전망은 쇠고기 가격의 상당한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가금육과 돼지고기 생산은 더욱 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신규 회원국들의 농업부문 총부가가치 생산은 결과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지불제, 농촌개발정책 자금, 국가 보조금 등의 형태

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신규 회원국 10개국에서의 농업 노동력 투입량은 매년 평균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caprep/prospects2006/fullrep.pdf> 발췌정리